

<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

갈라디아서 6:7-9 / 새찬송가 351(통일 389)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1.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원죄를 지고 태어난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죄의 걸모습은 즐거움이지만 죄의 결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으나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하고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한 선악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두 크든 작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시 51:5).

2. 이 자연스러운 낙심과 포기하고자 하는 좌절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갈6:7). 오늘 본문은 낙심이나 좌절이 무엇을 심고 거두어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은 모두 세상의 걸모습에 속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삶은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낙심하게 됩니다(갈6:8 상반절). 아무리 좋은 것을 거둬도 결국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걸모습의 가면을 걷어내고 감춰진 실상을 본 사람은 깨닫고 성령을 위해 심고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갈6:8 하반절).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참모습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롬8:21,22).

옛날 중국 황제들의 평균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이는 도교에서 주장하는 불로장생의 약을 먹었기 때문인데 그 약은 주성분이 수은으로 각종 유해성분이 가득한 액체금속이었습니다. 진시황도 수은을 불로장생약으로 생각하고 먹어 결국 수은 중독으로 인한 장기 손상 및 부작용으로 49세 때 급사하였습니다. 장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참 진리를 가렸기에 스스로 속아 이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실상을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실상을 본 사람은 걸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 그 자체가 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기에 인생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갈6:9).

세상의 영광을 위한 사람의 일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기에 낙심과 포기를 가져옵니다(전2:11). 만약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낙심과 포기를 가져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그 죽음도 부활 영생의 씨앗이 됩니다(고전15:42-44).

하나님의 일 그 자체는 우리에게 늘 새 소망과 새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고전15:58).

< 적용 & 실천 >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자는 마음이 됩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가 낙심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일인지 여쭙보며 기도합시다.